

# 送年辭 송년사



서성배  
(사)한국계육협회장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해나가는 미덕만이 육계산업의 미래에 희망을 보여줄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정해년(丁亥年) 한해를 보내면서 닭고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해주신 본회 회원사를 비롯해 전국의 육계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2003년 이후 또다시 과잉생산, 소비감소, 가격폭락 등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여 힘든 나날을 보내시는 닭고기 산업 관련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도 함께 전합니다.

육계산업 관련인 모두가 공감하는 상황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 닭고기산업의 미래에 커다란 부담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료곡물가격 및 유통가격의 폭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닭고기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닭고기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 스스로 자초한 면도 없지 않으나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너무 많아 극단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다면 닭고기 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업계는 HPAI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저병원성 AI의 발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닭고기 소비가 발생이전에 비해 5%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소비의 위축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HPAI의 발생이 본격화된다면 우리 업계는 더욱 힘든 날들을 보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철저한 차단 방역을 통해 HPAI의 발생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 실시해오고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한번 더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협회에서는 닭고기 산업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2~3년 간격으로 되풀이되는 불황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판단아래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닭고기가격 결정 구조의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전체적인 닭고기 생산비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인상돼 수익구조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데도 닭고기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거나 현상유지에 급급해 하고 있는 것은 결국 닭고기 가격결정 구조가 잘못돼 있다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해놓고 있으며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이를 반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사육, 생산, 유통분야별로 사용되는 용어 및 가치의 표준화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 협회에서는 12월부터 육계자조금을 활용,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각 회사들이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십시일반으로 조성한 소중한 기금입니다. 우리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회원사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육계의무자조금의 시행입니다.

저희 협회를 비롯 농협중앙회, 양계협회 등 3개 단체가 지난 2005년 8월에 육계의무자조금 도입을 합의해놓고도 2년여가 넘는 지금까지 이를 시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을 목전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앞으로 넘어야 할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빠끗거리다면 또다시 육계의무자조금 사업은 끝없는 나락 속으로 떨어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해나가는 미덕만이 육계산업의 미래에 희망을 보여줄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육계의무자조금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업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정해년을 잘 마감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라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